

		<b>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b>		
<b>報道資料</b> [2012.03.13.]	<b>보도시점</b>	<b>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b>담당부서</b>	활용정책과	<b>전화번호</b>	042-481-4745 042-481-4746
	<b>담당자 (e-mail)</b>	이종희(jonghee@ocp.go.kr) 이근영(ky0623@korea.kr)	<b>F A X</b>	042-481-4949
<small>「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게재</small>				

## 경회루 건립 600주년! 왕의 잔치가 돌아온다

- 3.28~30 오후 8시, 경복궁 경회루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세섭)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오후 8시에 경복궁 '경회루'에서 야간 전통공연 「2012 경회루 연향(宴享)」을 무대에 올린다.

'경회루 연향'은 경회루와 주변 경관을 무대로 활용한 실경(實景) 공연으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회루의 건축미와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화하고 한국 전통의 가(歌), 무(舞), 악(樂)을 결합하여 환상적 분위기와 감동을 자아내는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특별히 경회루의 건립 600주년을 맞이하여(태종 12, 1412년 건립) 경복궁과 경회루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야기 형식의 표현을 공연에 더하고, 미디어 예술 기법을 활용하여 공연의 독창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공연은 조선의 건국과 경복궁 창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경회루 창건과 외국 사신들을 위한 사신연(使臣宴)으로 이어져 궁중의 음악인 '정악'과 궁중 무용으로 공연이 꾸며지며, 이어서 경복궁 재건과 낙성연(落成宴)<sup>1)</sup>으로 고종 임금 당시 낙성연에서 출중한 기예를 발휘하여 청중을 놀라게 했던 국창(國唱) '진채선의 판소리'(안숙선 명창), 고종 때 경복궁 재건과 역사적 의미가 깊은 경기민요

1) 완공됨을 축하하는 잔치

‘경복궁 타령’(김혜란 명창)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의 이야기를 되살린 ‘줄타기’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경희루 연향은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 외교사절을 위해 연회를 베풀던 장소인 경희루에서 건축적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격조 높은 전통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진정한 한국의 멋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연 관람권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홈페이지 ([www.interpark.co.kr](http://www.interpark.co.kr))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02-3011-2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경희루 연향 공연 내용 1부.
2. 2011년 경희루 연향 공연 사진자료 1부. 끝.

## 2012년 경희루 연향 공연 내용

### < 프롤로그 > “조선의 개국과 경복궁 창건”

- 나각, 나발, 대고삼타
- 미디어 아트 쇼 (조명쇼)

### < 1부 > “경희루의 증건과 사신연”

- 일무 중 무무
- 국왕, 왕비 입장
- 정가(치사문 낭독)
- 대금독주
- 가인전목단
- 선유락

### < 2부 > “경복궁의 재건과 낙성연”

- 판소리(안숙선 명창)
- 무고
- 경기민요(김혜란 명창)
- 줄타기(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 <에필로그> “경희루, 야경에 물들다 ”

- 커튼콜

□ 공연시간 : 20:00 ~ 21:10(70분)

2011년 경희루 연향 공연 사진자료

